

### 금주의 말씀

마가복음 10:35-45



심재권 목사  
무기길교회 담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삭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

도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름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교회의 본질을 뒤로 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은 무엇 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 놓으시고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들을 하나는 오른 쪽에 하나는 왼 쪽에 앉게 해 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였습니다.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데도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을 보여 주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기 보다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시므로 본을 보여 주십니다. 남을 섬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남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지만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 위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이셨습니다. 섬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

리분들 중에 마음속에서 섬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좋은 것뿐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속성이 인간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넘쳐났고, 은혜가 넘쳐났고, 자비와 섬김이 넘쳐났고, 기쁨, 공의, 진리, 인내, 자애, 선, 관대함과 같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이 사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깨달아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후에는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기심과 질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를 놓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섬김은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날 바쁜 시대에서 시간을 드려서 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일조가 아까운 시대에 시간은 금이다 할 정도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권을 드려서 섬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각종 영적인 모임에 소홀해져 갑니다. 아마 점점 그 수는 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섬김의 힌계를 극복하고 섬기며, 가장 열악한 부분을 찾아 섬기며, 서로서로 섬김을 격려하며 섬김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고통이 헛되지 않을 줄 앎이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녀를 교육시킬 때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편하게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은 성공을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맞고 오면 너도 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추구한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회백 그림성경

###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98. 하나님의 의 (롬3:20-29)

개념의 한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즉 소위 말하는 율법의 의의 요구와 의미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의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그리고 전권에 들어가는 의로운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일어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다. 즉 내 자신 속에는 의의 요소가 없음을 자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놀이와 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회백·글:김승원 목사

### 교육



홍기범 교수  
·한글서체학회 회장 겸 이사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 10. 27.- )는, 이제 세계적 규모의 분쟁은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1927-2008)은 논문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을 통하여 후쿠야마의 논문을 반박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끝난 후에는 문명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팅턴이 열거하는 문명권은 서구 문명, 정교회 문명, 이슬람 문명, 중화문명(유교 문명), 일본 문명, 힌두 문명, 라틴아메리카 문명, 아프리카 문명 등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당시에 공산정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니카라과와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지만, 세계 정치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공산주의자는 하버드 대학과 MIT의 공산주의자 교수와 학생들을 의미한다. 하버드 대학과 MIT는 보스톤에 인접한 도시인 케임브리지에 있다.

제임스 카스는 충돌이 없어진 것도 아니며, 문명권 간의 충돌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짜 충돌은 서구의 문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① 서구 문명과 그리고 ② '다문화주

의 및 페미니즘 운동' 연합 사이의 충돌이라 주장했다.

로버트 조지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① 유대교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②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동성애 자유화, 자유로운 삶 등 현대 미국적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 사이의 충돌로 규정한다. 로버트 조지는 오늘날 기복 정소년들의 영혼과 마음을 노리는 경기자들이 등장하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무슬림들, 공산주의자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다. 로버트 조지가 언급하지 않은 뉴에이지도 우리의 정소년들을 노리고 있다.

1990년 초에 제임스 C. 들슨과 개리 바우어는 미국 내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대한 내전이 일어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왕이 불지

1997년에 데이비드 호르비츠(David Horowitz)는 《Radical Son: A Generational Odyssey》를 발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학문 세계의 중심적 지배층이다. 과거의 공산권보다 미국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자가 더 많다. 미국 역사학의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중추-성-계급 일체의 거짓 사회학으로 그 영역이 변형된) 전문 문학 협회 또한 마찬가지다. 급진주의 좌파들은 말과 행동으로 미국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보존 가치가 없으며, 미국 사회와 그 삶의 방식이 폭력적인 혁명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무너져야 할 바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오늘날은 외부의 적도 경계해야 하고, 내부의 적도 경계해야 한다. 교회에도 적이 침투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 종교전쟁(13)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기제 대통령이 불복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과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제도를 확립하였다.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문화 활동이나 체육 활동은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은 많은 경우, 동시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종교와 사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경쟁하는 종교와 사상은 기독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뉴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불교 등이다.

진화론자인 최재천 교수의 지도교수이며, 사회생물학을 창시한 에드워드 윌슨은 대학에 진학하여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버렸다. 대학에 진학하여 믿음을 잃은 이야기는 사실치 않게 들린다.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교회와 신학교로 침투한 지는 오래되었다. 기독교대학이라 알고 있는 대학의 교목이 자유주의자 신앙을 가진 경우도 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창조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화론자인 경우도 있다.

성경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 목사가 여기 저기 기독교대학, 신학교에 널리 퍼져있다.

자유주의에 물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에 물들고 있는 목사들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소개한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 신앙을 허무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 김성환 목사"로 검색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외부링크의 일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회건물 매매·임대

###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층)
-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근영로 159-1 / 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 \* 전리금 있음 \*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건물매매**

- 위치: 북구 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 북구주유소 북쪽(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 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 별도)
- 2층-교회 / 3층-조경 사무실 / 4층-서책
- 2층-교회 부당 40평 (심지가 다함 월급 중립)
-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심지가 다함 월급 중립)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운암동 대지로 87 2층
- 면적: 123.2㎡
- \* 뒷밭 10평 불도도 있음
- \*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움
- 금액: 2억원 \* 살림 가능
- \*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북향동사무소 맞은편 (목도영림수양관)
- 면적: 40평 (3층)
- 금액: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 \* 조장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대지 56평
-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6억 3천만원
- \* 성구 일체 포함
- \*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상가건물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근영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7평
- 1층 - 안보회 사무실(수 후 편의성, 카페 가능)
- 2층 - 교회 / 3층 - 조경 사무실 / 4층 - 서책
- 금액: 6억(조정가능) \* 교회비품무로도 드림(베레모에가)
- \* 교회 아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사시설, 타당증가능 \*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만지하 동풍 환기 잘됨)
-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장실)
- 금액: 6천5백만원 / 임대 보500 월35만원
- \*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 울리모텔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비게트 3층
- 면적: 55평
-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 \* 비전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1억 4천만원
- \* 식당, 창고화장실
- \* 성물의 자동차타력스1인승,집기포함

**010-8355-9200**